

## 공정위,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10일 내 지급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기술·교육 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7일(화)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이하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트모터, 현대캐피코, 이노션

이번 상생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여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 현대자동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 : 2026. 7. 7.(화) 15:45 ~ 16:50 (약 65분)
- 장소 :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 참석자 : 약 15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현대자동차 12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현대자동차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과정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등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시기, 방식 등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평균)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역시 제고하기로 하였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면서,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문화도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급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현대자동차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이하 '인센티브')을 마련·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 닿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력사 평가 시 배점 강화 및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우수 협력사 포상 등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 대상 기술·교육 등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협력사의 AI·소프트웨어·자율주행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AI·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사업의 확대에 맞춰 첨단 부품 관련 기술 협력사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5,5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원칙을 체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은 협력사와의 긴강한 협업 구조와 상생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위 역시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현대자동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강대준 (044-200-4946)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현대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2026. 7. 7.(화) 15:45



공정거래위원회

# 말씀자료

- 일 시 : 2026. 7. 7.(화) 15:45
- 장 소 :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현대자동차 그룹 경영진과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먼저 엄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산업과 기업 경영의 최전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계신  
기업 대표와 간부 여러분께 경의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생협약 체결에 힘써주신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님들  
그리고 우리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중견, 중소 협력사들을 대표하여  
이번 협약에 나서주신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경제학 그것도 소위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원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업은 개별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잘 설계된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강조하듯이  
착취적 시장 질서가 뿌리내리면  
소수의 강자와 특권층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성과를 독점하고  
경쟁자의 진입, 중소기업 성장의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는 혁신을 추동할

절박한 유인이 없고

약자는 혁신을 추구할 힘도 기회도 차단되어

누구도 혁신에 뒤처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이것이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규명했던 경제학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등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진 많은 나라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랐던 점은

언제나 개혁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주화, 정치개혁, 경제개혁 등

언제나 대한민국은 자기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역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규범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다시 설계되고 또다시 설계돼야 합니다.

선진국 기술을 추격해야 했던

지난 반세기 우리 기업은

단가 인하의 경쟁 압박 속에서

노동과 협력사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수출이 늘면 경제가 성장했고

더 많은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전혀 다른 경제성장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더 비싼 노동의 창의성과

더 비싼 협력사의 생산성이  
기술혁신의 발판이 되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  
부의 편중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기업생태계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을 뒷받침할  
튼튼하고 건실한 중견, 중소기업은 부족하고  
영세한 소기업이 넘쳐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허리가 두터운 것은 고사하고  
피라미드 모양도 아닌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  
기술 선도국으로 거듭나야 할 지금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비정상입니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면  
물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느슨한 게임의 규칙 때문에  
반칙이 기량을 압도한다면  
당연히 더 엄격한 규칙으로  
교체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과 착취는 기업의 위험을 키우고  
본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바른 노력만이  
기업이 성장하는 길이 되도록  
엄정한 시장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호응해야만 그 개혁은 빠르게  
큰 고통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맺어지는  
협약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AI-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의 대결을 넘어  
각 국의 산업 생태계 간 경쟁  
각 국의 경제 시스템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은  
그 주주와 종업원의 기업이지만  
우리 국민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은 바로 그 경영진의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 엔지니어 군단의  
기술 역량에 있습니다.

미래 현대자동차의 경쟁력도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경쟁력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불의와 억압이 없고,  
독점과 같은 편파적 힘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 때  
경제의 발전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업의 성장만이 아닌,  
더 많은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나누는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제학의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질 협약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은  
이와 같은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배터리, 통신 기술 등  
수많은 부품기업의 기술이 결합된  
첨단산업의 집약체입니다.

이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공급망과 산업생태계 간 경쟁이 됐습니다.  
협력사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 생태계의 활력은 약해지고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맺는 상생협약은  
단순한 기업 간 협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고  
명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생협력의 성과확산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상생협력의 문화가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1·2차 협력사들도 이에 발맞춰  
그 이하 협력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기술의 흐름도 이어지고  
기술의 흐름이 이어지면  
더 큰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AI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미래핵심기술 역량강화,  
협력사 임직원 교육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지원은  
협력사를 위한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생협력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지표의 개선과  
노동에 대한 보상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상생협력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대자동차와  
협력사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생협력의 규범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체결된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약의 이행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그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맞잡은 상생의 손길이  
중소 협력사에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활력을 주고,  
대기업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생협력의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